



◇광덕스님의 시구로 디자인한 '한글.문'.

네모꼴에 갇힌 한글 서체들이 뒤흠나와 한편의 그림이 되었다. 서울 태평로 로딩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한글 타이포그래픽 디자이너 안상수(50·홍익대 교수)씨 초대전은 한글을 이용해 얼마나 다양한 디자인과 그림을 만들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아마 세종대왕이 전사회장에 들렀다면 한글을 이용한 풍부한 상상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이다.



◇한글 자모로 만든 '한글만다라'.

한글자모 이용 만다라 제작

타이포그래픽 디자이너 안상수 초대전 7월 21일까지

7월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의 제목은 '안상수 한 글 상'. 25년간 한글조형과 작업에 몰두해 온 안씨는 한글 타이포그래피 typography·문자 디자인의 모든 분야를 일컫는 미술 용어 분야를 대표하는 작가. 1980년대 초반부터 한글 글꼴 개발에 앞장서며 가장 널리 알려진 안상수체를 비롯해 이상체, 미르체, 마노체 등 다양한 한글 서체를 선보였다. 특히 돋보이는 것은 한글 자모로 만든 '만다라(曼荼羅)'와 한글 주변(性聯)이다. 주변은 기둥에 붙어 있는 시나 그림, 사찰에서는 주로 경전 문구나 고승의 계승을 많이

쓴다. 안씨는 이번 전시에서 성철 스님의 계승인 '수양버들 실밭마다 푸르고 복숭아꽃 송이송이 붉도다'와 광덕 스님의 시를 자신이 개발한 율동분동한 마노체로 장엄했다. 안씨는 이번 전시에서 성철 스님의 계승인 '수양버들 실밭마다 푸르고 복숭아꽃 송이송이 붉도다'와 광덕 스님의 시를 자신이 개발한 율동분동한 마노체로 장엄했다. 안씨의 서울시 상수동 자택 대문도 폐어와 전시 중인데, 광덕 스님의 시구로 디자인한 독특한 조형미가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시인 이

성(李商隱)의 얼굴을 자모로 그린 '글자 초상', 자신의 이름 첫 자음을 따서 '빛머리'를 'ㅇ' 모양으로 꾸은 사진 등 재미있는 작품들이 수두룩하다.

불교방송과 불교 TV의 로고를 디자인하기도 했던 안상수씨는 "나의 타이포그래피 작업은 한글의

조형적 정제성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글자 자체의 의미 해석에서 벗어나 형태에 의미를 부여하고 일체 하는 작업에 치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2259-7781

문화 담당=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신촌 봉원사 영산재 보존회 스님들이 '영산재' 중 '식당작법'을 펼쳐보이고 있다.

봉원사 영산재 28일까지 상설공연

월드컵을 맞아 우리나라를 찾아 온 외국인들이 한국 불교음악과 미술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보존회 단체인 지정돼 있는 서울 신촌 태고종 봉원사는

28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씩 영산재를 축소한 '갈라 영산재'를 상설로 공연하고 있다.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할 당시의 장면을 춤과 노래로 표현한 불교 의식. 영산재 인간문화재 일용 스님을 비롯해 50여명의 스님들이 참여하는 이번 영산재 공연에서는 영산재의 중요부분을 간추려 발우공양과 함께하는 '식당작법(食堂作法)'이 펼쳐진다. 공연 관람이 끝난 뒤에는 관람객들이 발우공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해 놓고 있다.

이에 앞서 봉원사는 5월 30일 시작을 알리는 '타종(打鐘)'에서부터 마지막 '공덕계, 법성계 및 회향'까지 바라춤, 법고춤, 나비춤이 포함된 10여가지 영산재 의식을 시연했다. 발우공양을 포함한 관람료 2만원. 02392-3007

'취화선' 빛낸 '선암사' 풍광

임권택 감독 즐겨찾는 촬영장소 산수화 같은 숲·석조종교 영상미 뒷받침

5월 26일 열린 제55회 칸 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취화선'이 순천시 승주읍 조계산 선암사에서 촬영된 화제가 되고 있다. 조선시대말 천재화가 장승업(1843~1897)의 일대기를 아름다운 영상으로 그린 영화 '취화선'에서 특히 20대 후반의 장승업(최민식 분)이 가을 유림길을 떠나는 장면이 선암사에서 촬영됐다. 회교를 짊어지고 떠나는 장승업의 뒤로 화면에 등장하는 노랑, 빨강, 초록의 3겹 단풍과 산새들이 어우러진 숲길은 한쪽의 산수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아름답다.

이처럼 선암사는 이번 수상으로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오른 임권택 감독의 영화에서는 빼 놓을 수 없는 귀중한 촬영장소가 됐다. 81년 '만나'를 시작으로 89년 '아재야제 바라야제', 그리고 이번 '취화선'까

지 선암사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소재로 한 영상미를 증시 여기는 임 감독에게 가장 애착이 가는 곳. 우선 이번 '취화선' 속에 등장한 주차장에서 절에 이르는 1.5km의 울창한 숲길을 비롯해 계곡을 가로질러 절묘하게 걸려있는 아치형의 석조 홍교인 승선교, 해마다 봄이면 온통 사철을 형형색색으로 수놓고 있는 3백년 묵은 산철쭉·영산홍·고목동백·왕벚꽃 들은 임 감독이 추구하고자 하는 영화의 배경과 딱 들어맞는다는 평가다.

태형영화사 송혜선 이사는 "실제로 선암사는 임권택 감독이 즐겨 촬영하는 장소중의 하나"라며 "이런 이유로 선암사 절전선원장 지허 스님과 임 감독과의 교분도 오래돼 선암사측에서 영화 장소로 섭외가 되면 적극 협조하는 편이다"고 밝혔다.



◇20대 후반의 장승업(최민식 분)이 자연을 벗삼아 자신의 그림세계를 펼쳐가기 위해 유림길에 나서고 있다. 배경은 선암사 경내.

농인스님 찬불가요 음반 '마음의 향기' 출시



작곡가 농인 스님(서울 강동구 백운사 주지)의 첫 번째 앨범 '마음의 향기'가 새로 나왔다. 이번 앨범에는 선보인 노래들은 농인 스님이 출가 전 중생들의 이혼이나 사소한 분쟁들을 보여 서로 아끼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발원들과 출가 후 부처님

을 모시며 수행하면서 느꼈던 감동들을 오선지 위에 옮긴 대중가요와 찬불가요들이다. 타이틀곡인 '구름처럼 강물처럼 흘러가는 우리인생'을 비롯해 '울림에 핀 봉선화가 그립습니다', '연동', '나무관세음보살', '방생을 합시다', '님이시여', '사랑은' 등 농인 스님이 직접 작사 작곡한 찬불가요 총 8곡이 수록돼 있다.

농인 스님은 "기도가 끝난 뒤 회회심을 느끼며 만들어진 노래들이기 때문에 불자들에게 따스한 마음의 향기를 풍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외롭고 무거운 삶에 지친 중생들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잠시나마 크고 작은 번뇌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음반 제작 동기를 밝혔다.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6월이 시작되면서 나라 안팎으로 월드컵의 열기가 뜨겁다. 모처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불교계의 여러 행사 중에서 특히 봉원사의 '영산재'가 눈에 띈다. 영산재란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도량을 시공을 초월하여 옮겨와,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재현하는 것이다.

1938년 가을 수원 용주사에서 영산재가 열렸다. 그때 영산회상의 우아한 가락에 맞춰 펼쳐지던 승무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하여 재가 파한 후 늦게까지 잘 못마당 김나무 아래서 낮을 읽고 앉아 있던 시인이 있었다. 어느 이름 모를 승려의 승무를 본 후 가슴속에서 피어나는 시상(詩想)의 홍을 이기기 어려워, 긴 밤 내내 마음 설레었던 그 청년의 이름은 조지훈(1920~1968)이었다. "나는 시정을 느낄 땀, 뚝 모를 선율이 먼저 가슴에 부딪침을 깨닫는다." 이렇게 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국어 시의 하나인 <승무>가 탄생하게 된다.

얇은 사(紗) 하이안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작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자로 고와서 서러워라

조지훈의 '승무'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양 하고...

날아가며 사(紗)이 접어 올린 외씨 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밤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여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양 하고

이 밤사 귀포리도 지새는 삼경인데
얇은 사 하이안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조지훈은 정지용에게서 한글의 조탁을 통해 고전시를 계승하는 것을 배우고, 한운운의 권고로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해동전문 문과에서 공부한다. 그는 졸업 후 월정사 강원에서 외전(外典) 강사로 있으면서 한암스님에게서 불경과 심신을 지도 받았다. 마침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6월의 문화인물로 조지훈이 선정되었다. 시 <승무>를 읽고 그 속에 담긴 '번뇌를 범멸로 승화시키는 기쁨'을, 월드컵 기간동안 매일 오전 11시 봉원사에서 열리는 영산재에 참가하여 직접 맛보라는 뜻 같다.

■문학평론가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아무런 공력도 들이지 않고, 죽비로 내려치듯이! - 화엄(華嚴), 양자역학, 그리고 엑스터시 -

물리학 원리와 화엄경, 철학 禪詩와 선문답을 아울러 깨달지 못한 누구라도 절대 경지를 엿보게 한다.



- *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왜 0이 되는가?
- * 가로 세로 높이는 없는데 '위치'만 있단니?
- * 300,000km/sec의 절대속도는 정지 상태와 다르지 않다
- * 우주에는 '지금', '먼저', '나중'도 없다
- *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 * 항상 반쪽이면서 동시에 늘 짝 차 있다
- * 불보살을 공경하지 않아야 하는 까닭

대흥 지음 | 값 15,000원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전세계 4대 생불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승산 스님의 365 공안집.

하버드·에일대를 졸업한 서양 엘리트들을 스님의 길로까지 이끌었던 바로 그 책!

무심 편집 | 값 12,000원



현암사의 알기 쉬운 불경 시리즈

- 반야·유미경: 석가의 죽음은 권유한 결과와, 죽음 너머 영원한 세계로의 길을 밝힌 경전. 대무의 요시로 지음 | 값 9,800원
- 아함경: 이차다 미즈미로 지음 | 값 9,800원
- 아함경: 풍부한 예화로 부처가 직접 행한 설법, 불교의 뿌리 경전. 마스터니 후미오 지음 | 값 9,800원
- 화엄경: 대승경전의 웅대한 세계관과 석존의 깨달음이 집약된 안내서. 다카미 고시로 지음 | 값 9,800원
- 미란티당문경: 그리스 왕 미란타와 나가사나 존자 사이의 크나큰 대화! 불교 철학과 헬레니즘 사상을 대비시킨 독특한 경전. 이사카미 겐오 지음 | 값 9,800원

- 열반경: 석가의 죽음을 권유한 결과와, 죽음 너머 영원한 세계로의 길을 밝힌 경전. 대무의 요시로 지음 | 값 9,800원
- 재미있는 불교동화: 나한 이야기, 부처님의 열여섯 제자가 제각각 훌륭하게 되기까지의 우여곡절 이야기. 신영민 / 김태현 그림 | 값 6,000원
- 어린이 불만대장경 1,2,3: 팔만대장경에 담겨 있는 수많은 동화, 설화, 우화 이야기! 신영민 / 김태현·문영미 그림 | 각각 값 6,000원
- 내일 오실 부처님: 전쟁도 도둑도 없이 사람이 8만4천 살까지 살 수 있는 아득한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 이야기. 신영민 지음 | 값 6,000원